논문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연구
국내외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송 주 형*

1. 들어가며
2. 신문과 신문 아카이브의 기록학적 의미
   1) 신문의 기록학적 의미
   2) 신문 아카이브의 의미와 유형
   3)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역할과 가능성
3. 국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구축 현황
   1) KINDS(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2) 포털의 신문 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3) 기타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개별 신문사 및 국립중앙도서관)
4. 외국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구축 사례
   1) CHRONICLING AMERICA(Historic American Newspapers)
   2) 세계 최대 도서관의 신문 아카이브: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3) 기타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개별 신문사 및 아카이브 플랫폼)
5. 시사점과 제언
   1) 해외 사례의 시사점
   2) 국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개선을 위한 제언
6. 나오며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 수료, 한국외대 기록학연구센터 연구원. 주요 논저: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SNS 연구」, 『기록학연구』 39, 한국기록학회, 2014.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한국기록학회, 2015.
▪투고일 : 2016년 3월 20일 ▪최초심사일 : 2016년 3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6년 4월 15일.

[국문초록]

신문의 역할은 정부의 비판과 감시다. 공공의 문제에 해설과 논평을 하는가 하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한다. 메타데이터가 확실한 사진 기록물을 담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로컬리티 확보의 중요한 도구다. 신문에 실린 광고와 신문의 편집 역시도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도 신문은 늘 우선적으로 수집이 고려되는 기록물이다. 신문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문 아카이브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신문의 교육적 활용인 NIE에도 이용되지만 신문 아카이브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디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AM의 핵심에 아카이브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문 제작뿐만 아니라 신문사 경영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역할을 온라인 아카이브가 하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1991년 기사통합 DB인 KINDS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에서는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KINDS의 경우 초기에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가 빠져 있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지방지에 대한 접근성 등은 큰 장점이다. 고신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타이징을 하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의 경우도 아카이브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에서 국립인문기금과 함께 역사적 신

문을 디지타이징 하는 'CHRONICLING AMERIC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각 주의 대학과 역사협회, 공공 도서관에 기금을 줘 매년 10만 페이지의 지역신문을 디지타이징하고 있다. 영국 역시도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유료로 운영된다. 이곳 역시도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의 공공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금도 구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은 아카이브 솔루션을 구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ProQuest Archiver, Gale Cengage-NewsVault가 대표적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신문 자체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국내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과감한 투자 등이 요구된다.

주제어 :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한국언론재단, CHRONICLING AMERICA,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뉴욕타임스 아카이브, KINDS,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 솔루션

1. 들어가며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다.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신문의 가치와 중요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한 제퍼슨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신문을

성가셔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지만 민주주의에 있어 그만큼 신문이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신문도 1883년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행된 이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현황(2014)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일간신문은 374개, 인터넷신문은 5,950개에 달한다. 등록 후 발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의 부수인증을 확인하면 현황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12월 현재, 한국ABC협회에 가입된 신문은 159개며, 발행부수 100만부를 넘긴 신문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두 개나 된다.[1]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신문의 위기'라는 소리는 꾸준히 들리고, 실제 종이신문 독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2]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종이신문의 설 자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신문 아카이브'이다.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신문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로 축적된 아카이브로 대변되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권위이기 때문이다. 소위 '카더라 통신', '찌라시' 등 출처와 의도를 알 수 없는 정보를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까지도 신문에게 맡기곤 한다.

이렇듯 중요한 신문이지만 그 영향력과 가치에 비해 우리는 신문을 너무도 편하게 얻고, 손쉽게 버린다. 매일 아침 집으로, 사무실로 배달

---

1) 159개 중 전국일간지 24개, 지역일간지 106개, 경제지 13개, 영자지 3개, 특수일간지 3개, 스포츠지 6개, 무료일간지 3개, 생활정보지 1개이다. 발행부수는 조선일보 1,673,049부, 중앙일보 1,056,946부, 동아일보 916,546부, 매일경제 725,701부, 한국경제 505,263부, 농민신문 297,567부, 한겨레 244,830부, 스포츠조선 219,53부, 경향신문 215,131부, 문화일보 170,460부, 국민일보 201,322부, 한국일보 199,613부 순이다.

2) 신문구독률은 2002년 52.9%에서 2013년 20.4%까지 떨어졌다. 신문의 열독률은 2002년 82.1%에서 2013년 33.8%에 그쳤다. 이정환 외, 『저널리즘의 미래』, 인물과 사상사, 2015, 99~100쪽 참조.

되는 건 물론이고 온라인까지 제공되니 말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소비되는 신문의 특성상 막상 오래된 신문을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게 바로 신문이다. 때문에 지난 신문을 빠짐없이 모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해당 신문사에서는 자사의 신문을 자료실에 열심히 축적하고 있지만,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 측면보다는 기자의 기사작성을 위한 내부 이용 목적이 더 크다. 최근에는 디지털로 기사가 작성이 되고, 포털이나 신문사 홈페이지에 누적되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는 지난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찾지 못하는 기사들이 있고, 이용의 편리성 부분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의 경우 신문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이를 철저하게 구축한 경우가 많다.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온라인 아카이브가 함께 서비스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많은 신문사들이 아카이브를 자사 경쟁력의 원천으로 여기고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립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신문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공공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카이브에 대한 전통이 깊지 않은 상황[3]이다보니 신문 아카이브에 대한 정부, 신문사, 언론학계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 또한 기록학계, 문헌정보학계 등에서도 저작권, 구축예산 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 민간기록인 신문에 대한 관심이 공공기록에 비해 적었다.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인지 신문의 기록학적 의미나 신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선행연구도 미미한 편이다. 노동조[4]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일간지 자료실을 대상으로 문헌전달능력과 검색효율을 중심으로 평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탐색주제를 선정해

3) 곽건홍,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 구상」, 『기록학연구』 22, 2009, 26쪽.

4) 노동조, 「新聞社 資料室에 대한 評價－文獻傳達能力과 檢索效率을 中心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 1994.

신문사 아카이브에 기사를 요청하고 전달받는 방법을 통해 문헌전달 시간과 재현율과 정확률까지 수치적으로 제시한 연구였으나, 20여년 전 논문으로 현재적 의미는 적다고 하겠다. 또한 온라인 아카이브가 아닌 내부이용자를 설정한 오프라인 자료실 연구라는 한계를 지닌다. 보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로 진행된 김경모[5]의 연구가 있다. 여기에서는 해외 뉴스 아카이브의 사례분석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형 뉴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뉴스 아카이브라는 명칭에서 보듯 신문, 방송을 아우르는 아카이브를 설정하고 있어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해외 사례가 '밴더빌트 TV뉴스 아카이브'와 정치 방송 광고 아카이브인 'PCC 아카이브(Political Commercial Archive)'로 신문 아카이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밖에 다양한 주제별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도 본 논문의 선행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건축, 미술, 민속, 영화, 만화, 문학, 사진 등 다양한 주제별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아카이빙 대상이 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의미와 가치, 특성을 밝히며, 주제별 아카이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 대상의 특성을 잘살리고 거기에 맞는 아카이브 구축 방안은 신문이라는 대상을 아카이빙하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가 나와 있다. B. Gatos 등의 논문[6]은 그리스에서 1922년부터 발행된 『TO VIMA』라는 신문을 직접 디지타이징해 뉴스 아카이브를 구축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학,

---

5) 김경모 외, 『한국형 뉴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6) B.Gatos, S.L.Mantzaris, S.J.Perantonis, A.Tsigris, "Automatic page analysis for the creation of a digital library from newspaper archives", *International Journal on Digital Libraries*, Vol.3, Issue 1, 2000, pp.77~84.

컴퓨터공학 등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언론정보의 기술(describe), 시멘틱 검색 모듈, 온톨로지 기반의 콘텐츠 시각화와 브라우징 등 시멘틱 기반의 기술을 통한 뉴스 아카이브의 생산, 관리, 이용을 제안한 연구[7]를 비롯해, 토픽맵을 통한 뉴스 아카이브의 스마트 검색인 OmniPaper 프로젝트[8] 등 기술적인 부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학에서는 Adrian Bingham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등장이 역사가에게 좋은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활용한 역사연구의 사례와 아카이브 이용시 고려사항 등을 소개했다.[9]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David Deacon 역시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활용한 미디어 내용 분석 연구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미국의 온라인 뉴스 아카이브인 Lexis-Nexis의 케이스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10]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해 본 논문은 아카이빙을 위해 고려해야할 신문의 특징과 함께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구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구축된 국내외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온

---

7) P.Castells, F.Perdrix, E.Pulido, M.Rico, R.Benjamins, J.Contreras, J.Lorés, "Neptuno: Semantic Web Technologies for a Digital Newspaper Archive". *The Semantic Web: Research and Application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04, pp.445~458.

8) Van Hemel, S.B.Paepen, J.Engelen, "Smart Search in Newspaper Archives Using Topic Maps.", *7th ICCC/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Publishing*, Universidade do Minho, Portugal, 2003, pp.251~259.

9) Adrian Bingham, "The Digitization of Newspaper Archiv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Historians",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Vol.21. No.2, 2010, pp.225~231; "Reading Newspapers: Cultural Histories of the Popular Press in Modern Britain", *History Compass*, Vol.10, No.2, 2012, pp.140~150 등. 그는 실제 영국의 신문 아카이브를 활용해 *Family Newspapers?: Sex, Private Life, and the British Popular Press 1918-1978 Sex*(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9)라는 연구를 진행해 출간하기도 했다.

10) David Deacon, "Yesterday's Paper and Today's Technology: Digital Newspaper Archives and 'Push Button' Content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22(1), 2007, pp.5~25.

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된 아카이브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또한 이같은 작업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활용과 이를 위한 기술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는데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

2. 신문과 신문 아카이브의 기록학적 의미

1) 신문의 기록학적 의미

언론학자들은 원시적인 형태의 신문으로 로마시대 원로원의 의사록 악타 세나투스(Acta Senatus)과 평민원의 발표문 등을 엮어 발간한 악타 디우르나(Acta Diurna)를 꼽는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저보(邸報)를 비롯해 송나라 후기에 조보(朝報), 청나라 시대의 경보(京報)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조보(朝報) 또는 기별(奇別)이라 불리는 관보 성격의 신문[11]이 있었다. 이렇듯 신문의 초기 형태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기록물의 성격이 짙었다. 태생적으로 이미 기록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후 중세의 담화신문, 서한신문, 필사신문 등을 거쳐 1440년 구텐베르크, 푸스트, 쇠퍼가 개발한 마인츠 인쇄기가 전 유럽에 보급되면서 근대적 형태의 신문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후 신문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중요한 공공의 문제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해왔다.

책 다음으로 오래된 매스미디어인 신문은 매일 매일을 보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매체보다도 기록성이 뛰어나며, 잡지를 제외한 어떤 매체

11) 한균태 외, 『현대사회와 미디어』, 나남, 2013, 82~85쪽.

보다 상세한 뉴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신문은 역사를 기록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역사연구에서 신문은 사료로서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12] 신문은 정확성과 객관성, 균형성을 추구하며 보도하려 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적합하다. 공공기록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에도 신문에는 정부의 발표가 보도되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정부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록인 신문을 확인해보는 것은 보다 확실한 검증이 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는 경우 조선총독부의 기록과 당시 발행된 신문을 비교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또한 신문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public opinion)을 전달하며, 사설을 통해서 평가와 의견을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신문 논조를 비교·분석하면 당대의 여론과 정파적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흔히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과 『한겨레』, 『경향신문』 등과 같은 진보 성향의 신문을 비교하고 경향성을 파악하곤 한다. 신문의 보도행태, 기사분석 등을 통해 시대를 그려내고 사회를 해석하려는 연구들은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문은 단순한 사실의 기록만을 넘어 의견의 기록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신문 중에는 지방의 뉴스와 소식을 전달하고 기록하는 지방지도 존재한다. 중앙지에 비해 발행부수가 작고, 신문사의 규모도 영세한 경우가 많지만 지방지는 해당 지역에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 많은 경우 지방지는 로컬리티를 기록하는 중요한 도구로 향토사를 쓰는데 있어 중요한 사료가 된다. 제주 4·3 사건을 집중 취재한 제주도 지역신문인 『제민일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기록한 『광주일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신문은 지역과의 강한 유대와 꾸준한 취재로 중앙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역적인 기사를 생산해 낼 수 있으며, 이는 로컬리티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기록들이다.

---

12) 유재천 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16~223쪽.

신문에는 각종 사건, 사고 등과 관련된 보도 사진이 실리는데, 이는 명확한 메타데이터를 확보한 중요한 이미지 기록물이다. 작성된 사진 캡션은 물론 기사와 어우러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확실하고, 출처와 찍은 사람까지도 명확한 사진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보도 사진뿐만 아니라 평범한 장소, 일상 생활, 삶의 단편 등을 담은 피처(feature) 사진도 무시간성(timelessness)을 특징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뉴스만을 제공하는 스트레이트 기사(straight articles) 뿐만 아니라 사건의 이면에 초점을 맞춘 피처 기사(feature articles) 역시도 보편성, 문학성 등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보도된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신문의 편집을 통해서도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판(組版)이라는 과정은 신문 제작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데스크의 지휘 아래 기사와 사진들이 지면에 배치되는데,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즉, 1면 톱기사로 보도되는 기사는 12면 하단에 1단 짜리로 나온 기사보다 중요하다고 데스크가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가 배치되는 면수와 상, 중, 하단의 위치, 몇 단짜리 기사인지, 사진의 경우 컬러인지 흑백인지의 여부, 후속기사의 여부 등에서 신문이 발간될 당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문의 주된 수입원인 광고 역시도 시대의 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신문에는 매독신쾌제(梅毒神快制, 매독치료제), 사루소당카-루(보조식품/의약품)과 같은 의약품 광고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13] 상품광고는 물론 구인

13)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발행된 신문의 광고 34,278건을 살펴보면 매독신쾌제(매독치료제) 609건, 사루소당카-루(보조식품·의약품) 421건, 영제의원(병원) 154건 순으로 광고가 게재됐다. 정현, 「국립중앙도서관, '70년 전 古 신문 DB 구축' 일반에도 공개한다」, 『데이터뉴스』, 2014년 11월 29일자 보도 <http://www.data

광고, 구직광고, 행사광고, 영화광고 등 신문 구석구석에 자리한 다양한 광고는 당대 사람들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로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다.

2) 신문 아카이브의 의미와 유형

신문 아카이브는 특별한 학술적 정의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서구에서는 Newspaper archive, Newspaper library[14]가 모두 쓰이고 있지만 우리에게 신문 도서관보다는 신문 아카이브가 더욱 친숙하다. 신문(新聞)이라는 한자어와 아카이브(archive)라는 영어의 조합으로 이뤄진 조어지만 그리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록학적으로는 그리 호락호락한 개념은 아닌 아카이브[15]이지만 각종 영역에서 워낙 흔하게 사용되기도 하거니와, 다양한 주제별 아카이브의 등장으로 친숙해졌기 때문이다. 사진 아카이브, 방송 아카이브, 건축 아카이브, 미술 아카이브, 영화 아카이브, 음악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 민속 아카이브 등 다양한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신문 아카이브 역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주제별 아카이브는 그 정의를 “공기록들이나 역사상 중요한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때문에 보존된 역사에 관한 기록이나

---

news.co.kr/news/article.html?no=68136> [2015.12.13. 인용].

14) 복본이 많이 있다는 점,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편집된 점, 유기적이지 않다는 점, 업무나 기능과 관련되어 자연스레 생산, 집적되지 않는다는 점 등 신문은 기록물 보다는 도서에 가까운 요소가 더 많다. 그래서 신문 아카이브는 기록관보다는 도서관에 구축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15) T. R.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 Principles and technigues, 이원영 역, 『현대 기록학개론』, 진리탐구, 2002, 12~29쪽. 쉘렌버그는 이 책에서 아카이브의 정의를 길게 논의하고 있는데, 아카이브의 주요 특징 분석이 연구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카이브와 도서의 비교를 통해 아카이브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문서"라는 아카이브의 사전적 정의에 그 대상을 해당 주제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 아카이브는 "건축 활동과 관련하여 그 전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기록물, 그리고 그러한 기록물들을 조직적으로 수집 정리한 집적체"[16]로,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작품을 포함하는 미술기록을 수집, 평가·선별, 정리, 보존, 서비스 하는 전문기관"[17]으로, 사진아카이브는 "특정한 목적이나 분류체계에 따라 구성된 사진기록물 또는 사진기록보존소"[18]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이를 원용해 신문 아카이브도 "신문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19]"이라는 대상과 이를 "조직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서비스하는 기관, 조직, 장소"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주제별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신문 아카이브도 대상이 되는 주제, 즉 '신문'이 아카이브 성립의 중요한 요소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신문의 정의를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이라고 내리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와 의미는 바로 이런 신문의 폭넓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기록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신문의 기록성이 확보되고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신문 아카이브이다. 신문은 발행 시점에는 '새로운 뉴스(news)'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1차 가치를 지

16) 전봉희 외, 「한국의 건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적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3), 2004.
17) 정혜린 외, 「미술 아카이브의 미술기록관리 방안연구」, 『기록학연구』 20, 2009.
18)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의 현황과 필요성 고찰－한국근대사 관련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4, 2002.
19) 신문 관련 기록물로는 기사작성을 위한 기자들의 취재수첩, 실리지 못한 취재사진, 신문사 운영을 위한 행정문서, 신문제작에 이용된 박물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니지만, 날짜가 지나 '구문(舊聞)'이 되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2차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런 2차 가치를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문 아카이브이다. "저널리즘이 끝나는 지점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경구는 신문의 기록성, 역사성을 강조한 말로, 신문 아카이브는 바로 이 '저널리즘'이 끝나는 시점을 위한 준비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작된 '역사'인 신문 아카이브는 기자들이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는데 참고하는 것 외에도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언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 근·현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도 소재를 제공한다.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해 학습효과를 높이는 NIE(Newspaper In Education)[20]에서도 아카이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당위성 때문에 각 신문사들은 자사의 신문을 모아 놓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미 폐간되어 버린 고신문의 경우도 국립 도서관, 역사 또는 언론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아카이빙 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1개 신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형 아카이브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다수의 신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형 아카이브로 볼 수 있다. 개별형은 구축 예산이 대부분 언론사 자체 예산인 경우가 많고, 통합형의 경우 언론진흥기금, 공공도서관 예산 등 공공 기금이 주로 투입된다. 이러한 구축 예산의 성격으로 인해 개별형의 이용은 유료, 통합형은 무료인 경우가 많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눌 수 있다.[21]

---

20) 신문협회, 「국내 NIE현황 조사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21) 물론 이같은 분류가 절대적이진 않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민간 기업에서 이윤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통합형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아카이브도 신문사의 저작권 등 문제로 과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표 1> 신문 아카이브 유형별 구분

유형	개별형	통합형	
대상 신문	1종	다수	
구축 주체	해당 언론사 등 민간기업	도서관, 언론, 역사 관련 기관 등 공공기관	포털 등 민간기업
이용 요금	유료	무료/유료	

3)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역할과 가능성

신문 아카이브의 근본적인 역할 변화와 가능성 모색은 미디어의 환경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인터넷,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필연적으로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가 등장했으며, 현재의 신문 아카이브는 대부분 온라인을 의미하게 됐다. 신문 제작 환경 자체가 디지털화되면서 기사의 생산과 유통, 관리, 보존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물론 종이신문이 여전히 제작되긴 하지만 인쇄 직전까지 모두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예전처럼 종이신문을 디지타이징하는 작업은 사라지고, 생산과 동시에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로 이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단순히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준 것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경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문사는 사주가 소유한 사기업이다. 그런 신문사에게 있어 신문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중요한 상품이다. 즉, 신문사라는 공장에서 기자라는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된 상품인 신문은 독자들에게 판매된다. 이런 신문은 신문사 입장에서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이들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자산 관리(MAM, Media Asset Management)'로 아카이브가 그 운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이신문 시절 아카이브는 단순히 지난 신문을 모아 놓은 신문사의 자료실 내지 창고에 불과했지만 기사 작성부터 신문 제작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현재에 와서는 온라인 아카이브는 신문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 떠올랐다. 아카이브가 신문 DB를 구축하면 이를 통해 통합 뉴스룸 구성[22], 인터넷, 모바일, 방송 등으로 기사를 활용하는 원 소스 멀티 유스(One Source Multi Use) 전략, 콘텐츠의 생산, 관리, 판매, 재생산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듯 콘텐츠 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신문 아카이브의 다양한 역할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화에 따른 접근성 강화라는 단순한 효과 이외에도 SNS와의 결합,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 제공, 독자들과의 소통 강화, 비용절감, 데이터저널리즘 구현 등 다양한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단순히 신문의 역사적, 기록적 의미 외에도 많은 분야로의 의미 확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개별 신문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구축한 신문 아카이브에서도 서서히 시도되고 있다.[23]

---

22) 정동우, 「국내 신문사 뉴스 룸 통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50(4), 2006.

23) 이에 대한 논의는 언론계, 신문방송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언론사들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관련 연구만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신문협회, 「세계 신문의 새로운 수익모델과 신문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우형진 외, 「뉴스 저작물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시장확대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김성태 외, 「빅데이터로서 뉴스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홍영림 외, 「언론사의 스마트 플랫폼 사업전략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최민재 외, 「디지털 뉴스콘텐츠 시장과 저작권」,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최진순, 『한국신문의 뉴미디어 혁신』, 박문각, 2006 등.

<표 2> 콘텐츠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기존	미래
개념	콘텐츠 저장관리(생성, 저장)	콘텐츠 LIFE-CYCLE 통합관리 (생성-저장-교환-서비스-폐기)
콘텐츠 관리 기조	양적관리	양적관리, 질적 관리
콘텐츠 포맷	텍스트 중심	멀티미디어 중심
서비스 형태	단일 포맷서비스	PACKAGE 서비스 TEXT+사진+그래픽+오디오+비디오
콘텐츠 위치	고정적	유동적
서비스 절차	일방적	개인별 선호도
사용횟수	1회 사용	One Source Multi Use

* 출처 : 최진순, 『한국신문의 뉴미디어 혁신』, 박문각, 2006. 215쪽.

3. 국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구축 현황

신문 제작환경이 디지털화하면서 자연스레 국내 신문사는 모두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카이브라기보다는 단순한 기사 DB에 더 가깝다. 온라인 아카이브가 갖춰야 할 원문 제공이나 검색 기능이 부실하고, 기타 신문의 특성을 고려해 아카이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하지만 기본적인 보존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고, 어찌 되었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출발점이 될 곳들인 만큼 부족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신문 아카이브로 간주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KINDS와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개별 신문사와 국립중앙도서관이다. 이들 사례는 각각 통합형과 개별형 아카이브면서, 구축 주체가 공공과 민간으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KINDS(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KINDS(<그림 1>)[24]는 한국언론진흥재단(구 한국언론재단)이 구축, 서비스하고 있는 기사 통합검색 DB로, 국내 최대 최고의 뉴스전문검색 사이트다. 언론의 전문성 제고 및 일반인들에 대한 뉴스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1986년 추진계획을 수립, 1990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1991년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림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

당시 KINDS는 뉴스의 역사적 자료가치 창출과 공공성 확대에 기여한 중요 정보 인프라로 독점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그도 그럴 것이 두툼한 신문뭉치를 가져와 책상 한가득 펼쳐놓고 지면을 샅샅이 뒤져 운 좋게 원하는 기사를 찾아야만 하는 시절이었다. 찾은 기사를

24) <http://www.kinds.or.kr> [2015.11.29. 인용].

가위로 잘라 붙여 두꺼운 스크랩북을 여러 권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다시 또 들춰봐야 했던 이들에게 KINDS는 그야말로 '구원'이었을 것이다. 언론사 조사부, 기자 등 언론 관계자뿐만 아니라, 매일 신문기사를 찾아 스크랩해야 하는 정부 관료와 기업홍보처 직원, 신문기사를 분석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종합일간지 기사가 데이터베이스로 쌓여 있어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관련 기사들이 줄줄 나오고 이를 갈무리해 필요할 때 마다 쓸 수 있다는 건 '신세계'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다보니 "당시 '기사 검색의 모든 것'은 KINDS가 대변했다. 인터넷 시대와 함께 언론사들이 자사 기사 DB 구축을 시작하면서 90년대부터의 기사 DB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KINDS 덕분이요, 포털뉴스 검색의 노하우를 배워간 곳도 KINDS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25)]

현재도 KINDS는 국내에서 발간(보도)되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서울지역 종합일간지 기사를 비롯해 25개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9개 경제일간신문, 4개 TV방송뉴스, 10개의 인터넷신문, 1개의 영자일간지, 5개의 지역주간신문, 고신문 및 90년대 이전 신문 등을 포함한 약 2,952만 건의 기사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1960년부터 1989년까지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의 지면별 이미지 보기 서비스와 사설모음 서비스가 제공되며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고신문 검색이 가능하다. 이곳에서 현재 제공되는 매체와 기간은 <표 3>과 같다.

상대적으로 지역신문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연동되어 고신문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은 주요 일간지 중심의 포털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장점이라 하겠다. 또한 TV방송뉴스, 인터넷신문까지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경제지 등 각종 전문지까지

25) 오수정, 「인터넷 뉴미디어 : 카인즈, 이렇게 달라졌다」, 『신문과방송』, 2005년 3월호, 145쪽.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1960년~1989년 신문의 원문 이미지 파일 DB를 구축해 PDF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인쇄할 수 있다는 점, 뉴스 스크랩 기능 역시 장점이지만 포털의 화려한 등장에 KINDS의 '영광'은 퇴색되었다.

<표 3> KINDS에서 제공되는 뉴스기사검색서비스

분류	제공 매체	제공 기간
서울지역 종합일간지 (10개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아시아투데이	1990년 1월 1일~ (문화일보 1996년 12월 1일~)
서울지역 외 종합일간지 (25개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2005년 1월 1일~
경제일간지 (9개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스투데이, 프라임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1995년 1월 1일~, 서울경제 1996년 10월 1일~, 헤럴드경제 2000년 1월 1일~,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는 2001년 11월 1일~
TV방송뉴스 (4개사)	KBS, MBC 9시 종합뉴스 및 SBS 8시 종합뉴스, KNN 기사 검색	1997년 7월 1일~(각 방송사홈페이지 해당기사로 연결)
인터넷신문 (10개지)	대덕넷, 레이버투데이, 브레이크뉴스,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조세일보, 투데이코리아, 폴리뉴스, 한국재경신문, 아이콘TV	매체 창간일(1999년)~(매체 홈페이지의 해당기사로 연결됨)
영자일간지 (1개지)	Korea Herald	1995년 7월 1일~
지역주간신문 (5개지)	김포뉴스, 옥천신문, 주간당진시대, 평택문화신문, 홍성신문	2005년 1월 1일~
90년 이전 신문(4개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의 신문지면 이미지 일자별 제공	1960년~1989년

고신문 (28개지)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협성회회보, 매일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_국한문, 매일신보	한국언론진흥재단 구축
	공립신보, 국민보, 대공보, 독립신문(상해발행), 북미시보, 선봉, 신한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대한민보, 태평양주보, 대동공보, 한민, 단산시보, 신한국보, 권업신문, 해조신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

2007년부터는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이 중단되었고, 언론사닷컴 자체 서비스와 뉴스포털 이용 증가에 따른 이용률 저하, 이윤배분 등 마찰로 인한 언론사 이탈,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술시스템 등과 같은 단점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하지만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 시절부터 기사 DB, 기사통합검색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선도적 위치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방대한 DB 및 인프라, 100억 원 이상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공공성 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일 통합 뉴스 아카이브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지난 몇 년간 한국언론재단은 TF팀을 구성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연구하며 포털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포털이 언론사 기사로 이용자를 끌어들여 페이지뷰를 늘리는 상업적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KINDS는 뉴스제공사,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공익 확보에 주력해왔다. '온라인 뉴스의 저작권 보호와 수익모델에 대한 논의'나 'NewsML[26] 중심의 뉴스 포맷 표준화', 온라인신문협회, NHN(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스(네이트)와 함께 디지털뉴스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아쿠아프로젝트'[27] 추진 등의 활동을 통해 언론사

26) News Markup Language, 뉴스를 정의하기 위한 확장성 생성 언어(XML) 기반의 표준 형식. 김명기 외, 『뉴스의 혁명 NEWSML』, 박문각, 2007 참조.

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한국언론재단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2억을 투입해 빅데이터 사업[28]을 추진하며, 카인즈를 기반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 카인즈'를 개발해 선보인다는 계획[29]을 발표한 바 있다.

2) 포털의 신문 아카이브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aver News Library)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그림 2>,이하 NNL)[30]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기사 검색 서비스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등 4개사의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총 70만 면, 385만 건의 기사가 제공된다. 2009년 4월 30일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Digital News Archive)'라는 이름으로 베타 오픈한 이 서비스는 각각 창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3개의 종이 신문을 원형 그대로 디지타이징하여 웹에 구현한 뉴스 아카이빙 서비스였다. 2011년 4월 7일 제55회 신문의 날을 맞아 계획한 80년 전 구간이 서비스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0월 27일 한겨레신문이 추가되어 현재 제공하는 신문과 기간은 <표 4>와 같다.

---

27) 이상헌, 「디지털 뉴스 유통의 지각변동 예고」, 『신문과방송』, 2005년 6월호, 162~165쪽.

28) 김창남, 「언론재단이 빅데이터에 주목하는 까닭은」, 『기자협회보』, 2015년 2월 4일자 보도,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5676> [2015.12.20. 인용].

29) 금준경, 「"혼이 비정상" 박근혜 대통령 발언 쉽게 검색하려면」, 『미디어오늘』, 2015년 11월 26일자 보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313> [2015.12.20. 인용].

30) <http://newslibrary.naver.com> [2015.12.25. 인용].

<그림 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의 뷰어창

<표 4> 뉴스 라이브러리 서비스 언론사 및 기간

서비스 신문	서비스 기간	발행 중지 기간
동아일보	1920.4.1.(창간)~1999.12.31	1920.09.26~1921.1.10(제1차 무기정간) 1926.03.07~1926.04.20(제2차 무기정간) 1930.04.17~1930.09.01(제3차 무기정간) 1940.8.12~1945.11.30(강제폐간) 1950.6.28~10.3(6.25 전쟁으로 중단)
경향신문	1946.10.6.(창간)~1999.12.31	1950.6.28~1951.12.31(6.25 전쟁으로 중단) 1959.5.1~1960.4.27(폐간)
매일경제	1966.3.24.(창간)~1999.12.31	
한겨레	1988.5.15.(창간)~1999.12.31	

NNL의 특징은 신문의 기사뿐 아니라 지면에 있는 면 정보, 기사, 소설, 시, 사진, 만평, 만화, 날씨, 표, 휘호, 서화, 돌출광고, 전단광고, 소형광고, 광고군집, 그래픽, 기타 등 17개의 신문 구성요소를 구별하여 디지타이징했고, 기사 글자 하나하나에 신문 지면에 따른 위치 값이 반영되어 있다. 그 결과 다른 신문 아카이브 서비스와 달리 구성 요소별 본문검색이 가능하여 경제면 기사만 보기, 특정 키워드의 광고만 검색

하기 등이 가능하다. 또한, NNL 자체의 뷰어를 통해 종이신문 느낌으로 신문 펼쳐보기, 확대/축소, 스크랩 등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한자의 한글 자동변화 기능을 통해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배려하고 있다. 날짜별 신문보기나 기사 검색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지만, 상세검색(매체/섹션/기사유형별 검색 등)은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한 후 가능하며, 관심 있는 기사를 스크랩해둘 수도 있다. 저작권 등의 문제로 텍스트 복사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PC가 아닌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원문 이미지 제공 통합형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라는 점에서 2006년 6월 론칭한 Google News Archive[31]와 형식과 아이디어,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후발 주자인만큼 해상도 등 신문의 이미지 품질과 앞서 살펴본 이용자 편의성, 검색 툴, 인터페이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NNL이 우수하다. 다만 2,000종 이상의 종이신문을 디지타이징한 구글의 방대한 규모만큼은 4종의 신문만을 서비스하는 NNL이 따라갈 수 없다.

NNL은 표준화된 플랫폼인 만큼 어느 신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실제 2010년 중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헌협력과 중국신문 디지타이징에 관한 국제 도서관 심포지엄'에서는 『신보』, 『광명일보』, 『인민일보』, 『문회보』 등 중국 유수 신문 4종을 데모 서비스로 구현하기도 했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NNL은 더 이상 신문 추가 등 서비스가 확장되지는 않을 계획이다. 또한 언론사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구축,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나 활용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네이버라는 포털의 위상을 생각할 때 많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

31) <https://news.google.com/newspapers?hl=ko> [2015.12.20. 인용].

3) 기타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개별 신문사 및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신문사들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백 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지만 상당수 신문업계가 스스로 생산한 콘텐츠 관리에 허술하다.[32] 현재는 기사작성과 유통이 모두 디지털로 이뤄져 자연적으로 콘텐츠가 디지털화되지만, 90년대 이전 종이신문의 디지털화는 부실한 신문사가 많다. 신문사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곧바로 수익과 연결되지 않는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15년 8월 14일자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2014년 『조선일보』의 매출액이 3,393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앙일보』가 2,936억 원, 『동아일보』가 2,857억 원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은 『조선일보』가 306억, 『동아일보』가 30억의 수익을 냈지만,[33] 『중앙일보』의 경우 609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조·중·동이 이러하니 다른 신문사의 사정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카이브 구축에 큰 투자를 하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나마 『조선일보』의 경우 자사 보유 콘텐츠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수십억 원 대의 투자를 진행했다. 2006년 12월 1차로 구축된 아카이브(<그림 3>)는 1920년 창간[34] 당시부터 현재까지 260만 여건의 기사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1920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목과 주제어, 기고자 검색이 가능하고, 1990년부터는 본문검색이 지원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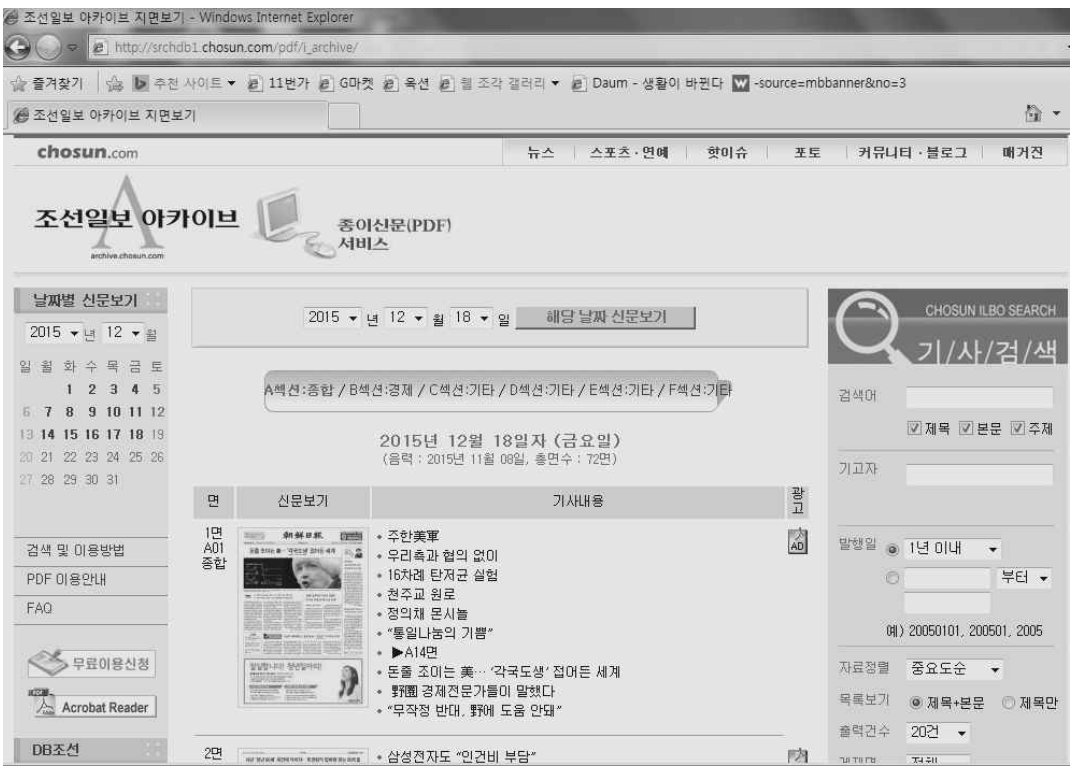
32) 최진순, 『한국신문의 뉴미디어 혁신』, 박문각, 2006, 191쪽.

33) 가장 오랜 역사와 높은 순이익을 자랑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뉴지엄(NEWSEUM)과 프레지엄(PRESSEUM)이라는 신문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34) 조선일보 창간호는 1920년 3월 5일이라고 하는데, 현재 찾아볼 수가 없다. 이어 1920년 3월 7일자로 낸 조선일보 제2호 역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과거 신문 아카이브의 보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예다.

며, 1996년 이후부터는 기사유형별, 면종, 지역 검색 등의 고급검색까지

<그림 3> 조선일보 아카이브



가능하다. 기자·기고자 검색, 고정물/연재물명 검색 등은 전체에서 가능하며, 일자별 신문지면을 PDF로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단체 및 법인이 유료로 가입해 이용해야 한다.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경우는 『조선일보』와 비슷한 수준 정도로 구축돼 있지만, 이들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사는 다음의 <표 5>처럼 최근 몇 십 년간의 PDF 지면보기 형태로만 아카이브가 운영되고 있다. 창간 이후 몇 십년간의 신문이 디지타이징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대부분 키워드로는 검색이 안 되고, 신문이 발행된 날짜로만 검색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하루치에 500원, 1개월 10,000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으며, 기사저장 및 인쇄는 1건에 300원을 과금한다. 검색의 불편함과 한정된 기간의 서비스

제공은 대부분의 국내 신문사 온라인 아카이브 공통의 문제점이다.

<표 5> 국내 주요 신문사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신문사	창간일	서비스 제공	아카이브 주소
조선일보	1920.3.5.	1920.3.9.~	srchdb1.chosun.com/pdf/i_archive/
중앙일보	1965.9.22.	1965.9.22.~	paper.joins.com/Library/
동아일보	1920.4.1.	1920.4.1.~	www.donga.com/news/dongadb/archive_index.html
한겨레	1988.5.15.	2006.1.2.~	pdf.hani.co.kr/PaperList.aspx
한국일보	1954.6.9.	2006.1.2~	pdf.hankookilbo.com/p.aspx
경향신문	1946.10.6	2006.1.2.~	epaper.khan.co.kr/index.html
국민일보	1988.12.10	2002.1.1.~	pdf.kmib.co.kr/index.asp
세계일보	1989.2.1.	2006.1.2.~	eyescrap.segye.com/segye/index.php
서울신문	1904/1945	1998.10.12.~	www.seoul.co.kr/paoin/
문화일보	1991.11.1.	2002.1.1~	pdf.munhwa.com/2007/pdf_list.html

개별 언론사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은『황성순보』,『제국신문』등 근대 신문을 비롯하여 1950년까지 발행된 신문을 디지털화한 원문 DB를 제공하고 있다. 폐간된 신문의 이들 기사는 기사제목과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013년부터 귀중본 고(古)신문 DB 구축사업을 해왔으며,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완료되면 옛날 신문 20종이 디지털화된다. 이번 사업은『제국신문』,『조선신문』,『가정신문』,『군산신문』,『동광신문』,『민주중보』등 1950년 6월 이전에 발행된 62권, 1만3천51면을 대상으로 한다.[35] 2015년 12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 원문보기 서비스가 되는 신문은 총 1,364,256건으로 시기별로는 1945년~1950년이 373,893건, 1901년~1944년이 963,272건, 1801년~1900년이 27,091건이며 종류는 <표

35) 박상현,「국립중앙도서관, 근현대 발행된 옛날 신문 6종 DB화」,『연합뉴스』, 2015년 8월 5일자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5/0200000000AKR20150805086000005.HTML?input=1195m> [2015.12.20. 인용].

6>과 같다. 이곳 역시도 신문 아카이브 측면의 구축이 아닌 DB 구축 개념으로 접근을 해 이용편의성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표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신문 DB

신문명	비고
경남일보, 고려시보, 공립신보, 농민주보, 만선일보, 만세보, 민보, 상업일보, 서울夕刊, 시대일보, 신한민보, 우리신문, 중외신보, 중외일보, 江原日報, 光明日報, 大東新聞, 大韓每日申報, 東光新聞, 東邦新聞(DongBangPress), 東方新聞(DongBangTimes), 每日申報, 貿易新聞, 文化日報, 民報, 民主日報, 民主衆報, 藝術通信, 全國勞動者新聞, 海洋硏究所報, 皇城新聞,	
독립신문, 민중일보, 중앙신문, 國民新報, 南鮮經濟新聞, 大韓獨立新聞, 獨立新報, 聯合新聞, 帝國新聞, 濟州新報, 朝鮮中央日報, 朝鮮中央日報(여운형), 朝鮮中央日報(유해붕), 漢城日報, 現代日報, 皇民日報, 光州民報	국가DB 사업으로 구축

4. 외국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구축 사례

신문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고, 아카이브 문화 또한 일찌감치 정착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신문 아카이브 구축이 우리보다 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경우는 이들 선진국도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니진 않았다. 필연적으로 전자기록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에야 구축이 가능했으니 말이다. 물론 오프라인 아카이브의 정리 상태 등에 따라 디지타이징의 수월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역사가 긴 만큼 대상 종이신문이 많다는 점은 오히려 후발주자인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는 구축 수준과 범위를 비롯해 접근성, 검색, 활용 등 이용편의성을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역시나 오프라인 아카이브에

서부터 이어져 오는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온라인 아카이브에서도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겠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에게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유형별 해외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비교적 많은 양의 신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꾸준히 구축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공공기관이 구축한 통합형 아카이브면서 무료로 운영되는 미국 국회도서관과 이와달리 유료 운영되는 영국 도서관, 그리고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유명한 개별 신문사인 뉴욕타임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CHRONICLING AMERICA(Historic American Newspa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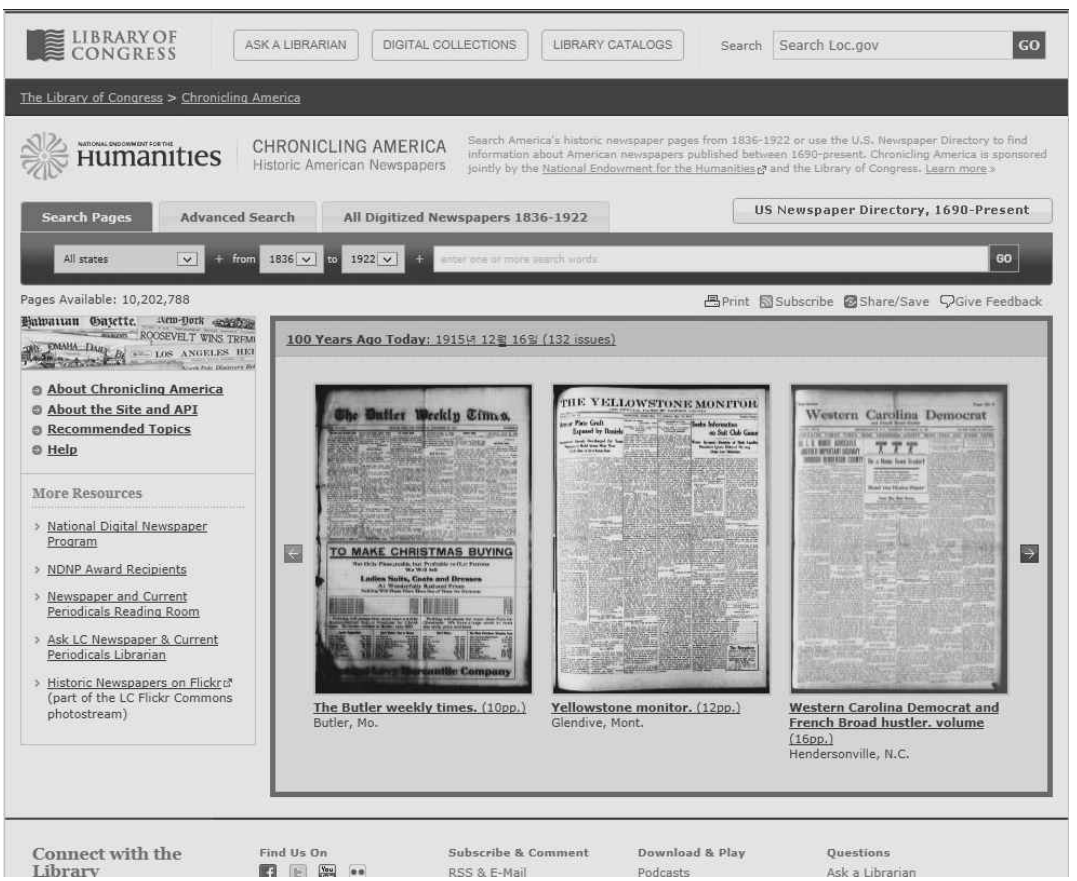
CHRONICLING AMERICA(<그림 4>)[36]는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구축 중인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로 2005년 시작돼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발간된 역사적 신문을 선별해 디지타이징하고, 서비스하는 장기 프로그램인 National Digital Newspaper Program(NDNP)의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다. NDNP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이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며 각 주별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NDNP는 1982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United States Newspaper Program(USNP)의 후속 사업이다.

USNP는 169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역사적 신문들에 대한 기술 및 목록화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할 신문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협동온라인 연속간행물사항(Cooperative ONline SERials Program, CONSER)을 통한 MARC가 생성됐고, 이는 NDNP의 중요한 기반이

36) <http://chroniclingamerica.loc.gov/> [2015.12.10. 인용].

됐다. 이 자료는 약 14만개의 서지 타이틀 항목과 90만 개의 별도 도서관 보유 기록으로 MARCXML 포맷으로 전환돼 CHRONICLING AMERICA의 뉴스 타이틀 디렉토리에 사용됐다. 1836년부터 1922년까지 미국 각 주에서 발행된 신문을 디지타이징하기로 한 NDNP는 2003년 국회도서관과 NEH가 정식협약을 맺고 2004년 사업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그림 4> 미 국회도서관의 CHRONICLING AMERICA



발표했다. 기금에 선정돼 NDNP에 참여하는 기관은 해당 주의 역사와 지역정보 등이 담긴 약 10만 페이지의 신문을 디지타이징 한다. 단계적 구축을 위해 2005년 첫해에는 1900년~1910년 사이의 신문을 대상으로 했으며, 2007년에는 1880년~1910년, 2008년에는 1880년~1922

년에 발행된 신문을 대상으로 했다. 매년 대상 신문을 지정해 점차적으로 1836년부터 1922년을 모두 커버하는 범위로까지 확장됐다.

참가기관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그리고 중복작업을 피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적합하고, 서지적으로 완전한 마이크로필름을 1차적으로 디지타이징했다. 또한 폐간되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신문을 우선 선택하여 작업했다. 작업 결과물은 국회도서관이 지정한 용량, 포맷 등 표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작업에는 2015년 12월 현재, 40개의 주 및 자치령의 주립 도서관, 역사협회, 대학 등이 참가했으며, 이들이 작업해 서비스되는 분량은 1,945개 신문의 10,244,477페이지에 달한다. 이밖에도 1690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신문 디렉토리 153,642개가 제공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별도의 뷰어없이 사이트에서 바로 제공되는 PDF와 JPG 원문이미지를 자유롭게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통한 텍스트 추출도 가능하다. 신문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 SNS로 공유하거나 자유롭게 저장할 수도 있다. 검색에서는 발행된 지역(state), 신문제호, 면, 발행기간, 언어,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단어나 구(phrase)를 입력해 검색이 가능하다.

2) 세계 최대 도서관의 신문 아카이브 :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세계 최대 도서관인 영국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이 보유한 신문 컬렉션은 1603년부터 현재까지 영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신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는 60만권 이상의 신문 합본이 선반 32km를, 30만 릴의 마이크로필름이 선반 13km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들 신문을 런던의 국립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고도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인터넷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그림 5>)[37]를 구축했다. 이곳은 영국 국립도서관과 온라인 퍼블리싱 업체인 findmypast가 파트너십이 돼 구축됐으며 2011년 론칭돼 향후 십여 년간 4,000만 페이지의 신문을 디지타이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5> 영국 국립도서관의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현재 이곳에는 영국 국립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1800년부터 1950년까지 발행된 약 1,200만 페이지 이상의 신문이 디지타이징돼 있다. 대상 신문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아일랜드의 101개 지

37) <http://www.britishnewspaperarchive.co.uk> [2015.12.16. 인용].

역에서 발행된 영국 신문으로 2015년 12월 현재 552타이틀, 12,527,049페이지가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되는 신문은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은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인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로부터 300백만 파운드의 펀딩으로 이뤄졌다.

유료로 운영되는 이곳의 이용요금은 한 달에 12.95파운드, 1년에 79.95파운드이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 달 약 23,000원, 1년이면 약 142,000원이다. 기간별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1년 동안 최고 40페이지까지만 이용하면서 19.95파운드를 결재하는 방식도 있다. 공공기금으로 구축되었지만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운영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신문의 검색은 발행시기, 제호, 신문이 발행된 지역, 발행 장소를 조건으로 할 수 있고, 뉴스(News Articles)와 가문 공지(Family Notices), 삽화(Illustrated), 잡보(Miscellaneous), 광고(Advertisements)를 분류해 섹션별로 찾을 수도 있다. 신문의 전면(front page)만을 한정해 검색할 수도 있으며, OCR을 통해 텍스트 추출도 가능하다. 뷰어에는 인쇄와 다운로드, 북마크, 태깅, 코멘트 기능과 확대, 축소, 이동, 전체 화면 보기가 제공되며, 메뉴에는 기사 텍스트 편집, 기사목록을 비롯해 MY Notes 기능 등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와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역시 운영하고 있다.

3) 기타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개별 언론사 및 아카이브 플랫폼)

이밖에도 해외 유수 신문사들은 탄탄한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 신문사들이 우리나라의 신문사 보다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

리와는 차이가 있다. 신문 기업은 해외에서도 구글 등 포털과 SNS의 등쌀에 예전 같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일수록 신문사들은 아카이브가 자신들의 귀중한 자산이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아카이브를 통해 더욱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고, 이를 전통이 깊지 않은 여타 매체와의 경쟁에서 무기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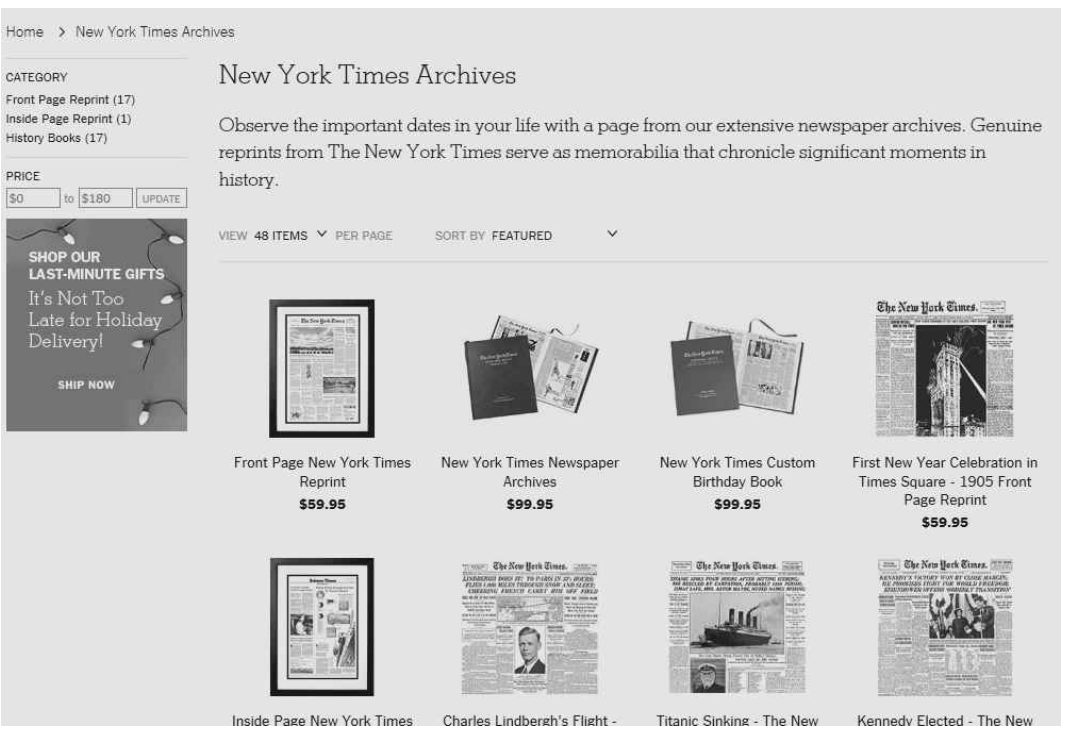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아카이브[38]는 1851년 창간된 이래 현재까지 1,300만 개 이상의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1851년부터 1980년까지, 1981년부터 현재 기사로 구분되어 검색되며, 'TimesMachine'이라는 자체 뷰어를 통해 신문의 원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독자, 온라인 독자, 비독자 등 이용자를 나누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용자별, 발행 기간별로 아카이브 기사 접근과 이용 요금을 세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51년부터 1922년까지의 기사는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1923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사는 신문의 유료독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유료독자가 아닐 경우 아카이브 기사 한 개 당 3.95달러의 요금을 받는다.

기사의 텍스트/사진, 차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등에 유형에 따라 가격이 차등 적용되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사의 검색은 기간(창간 이래 / 24시간 / 일주일 / 한 달 / 일 년 / 특정일자), 결과 타입(전체 / 기사 / 블로그포스트 / 멀티미디어 / 토픽 / 레시피), 기자(전체 기자, 특정 기자), 섹션(전체 / 경제 / 스포츠 / 미국 / 국제 / 뉴욕과 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베타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미지 검색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통합형 보다는 보다 다양한 검색점과 기능을 제공한다. 이곳 온라인 아카이브에서는 <그림 6>과 같이 신문을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역사 마케팅(history marketing)'[39]을 진행

38) <http://www.nytimes.com/ref/membercenter/nytarchive.html> [2015.12.1. 인용].
39) 노명환, 「기업 및 지역공동체를 위한 기록관리와 역사마케팅」, 『한국외국어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생일날과 같은 특정일자의 신문을 액자에 넣어 판매하거나, 매년 해당 일의 기사를 모아 책자를 만들어 판매한다. 또한 특정 사건을 보도한 기사만을 골라 구입할 수도 있다. 린드버그의 비행 기사라든가, 타이타닉 침몰 기사, 케네디 대통령 당선 기사 같은 역사적 사건은 물론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기사도 아카이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순히 기사 그대로의 판매가 아닌 기사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수익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다.

<그림 6> 뉴욕타임스 아카이브의 판매상품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을 위해 신문사 내부에 담당 부서를 두는 것이 좋겠지만 투자 대비 이윤 등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특성상 비

학교 정보기록학과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0.

용을 최소화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신문사 자체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보다는 많은 경우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입해 턴키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문의 형태와 아카이브 서비스 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화된 아카이브 솔루션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아카이브 솔루션으로는 미국 미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ProQuest Archiver와 Gale Cengage-NewsVault 를 들 수 있다. ProQuest Archiver의 경우 캐나다, 이스라엘, 미국, 영국의 130개 이상의 신문이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문사로는 영국의 『가디언』, 『옵저버』, 미국의 『LA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이 있으며, 최고 1764년에 발행된 역사적인 신문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신문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40] Gale Cengage-NewsVault 도 '더 타임즈 디지털 아카이브', '파이낸셜 타임즈 역사 아카이브', '이코노미스트 역사 아카이브' 등 다양한 디지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고 400년 이상된 1,500만 페이지의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5. 시사점과 제언

1) 해외 사례의 시사점

구축 목적이나 대상이 상이하다보니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사례 모두가 기본적인 이용자 편의성은 확보해 나름대로 충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장기적인 계획과 안정적 기금으로 현재까

40) <http://www.pqarchiver.com/index.html> [2015.12.5. 인용].

지도 계속 구축이 되는 아카이브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아카이브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해외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비교

명칭	CHRONICLING AMERICA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New York Times Article Archive
운영 및 구축	미국 국회도서관/주립도서관, 대학, 주 역사협회	영국 국립도서관 findmypast	뉴욕타임스
구축예산	국립인문기금(NEH)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JISC)	뉴욕타임스
구축기간	2005년~현재(NDNP)	2011년부터 현재	현재
제공기간	1836년~1922년	1800년~1950년	1851년~현재
제공분량	1,945개 신문, 10,244,477 페이지	552개 신문 12,527,049 페이지	1개 신문 1,300만개 기사
이용요금	무료	유료	유료(일부 무료)
유형	통합형		개별형
특징	협업형 구축	개인화 서비스	마케팅 도구화

이들 아카이브는 우선 통합형 아카이브와 개별형 아카이브로 구분할 수 있다. 도서관이 중심인 두 사례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발행된 다수의 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1개의 특정 신문만을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얼핏 여러 신문을 한 곳에서 검색, 이용할 수 있어 통합형 아카이브가 좋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용목적에 따라 그게 꼭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 워낙 많은 신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개별형 아카이브에 비해 메뉴 구성도 단순하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각각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예를 들어 통합 아카이브에서는 제호, 발행지역, 발행기간 정도만을 제한해 검색할 수 있는데 반해 뉴욕타임스 아카이브에서는 발행기간 검색은 물론 경제, 스포츠 등 섹션별 검색이나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

나인 이미지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잘 구축된 개별형 아카이브가 여럿 존재한다면 부실한 통합형 아카이브 하나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통합형 아카이브의 경우 국가 주도로 공적 예산이 주로 투입되지만, 개별형 아카이브는 신문 기업의 자체 예산으로 구축된다는 차이도 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아카이브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반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국립인문기금(NEH)으로 구축되고 있는 CHRONICLING AMERICA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제공되는 시기가 저작권이 사라진 1836년~1922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뉴욕타임스 아카이브 역시도 창간호(1851년 9월18일)부터 1922년까지의 아카이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기간의 경우 신문의 유료구독 여부에 따라서 이용 요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비록 유료이긴 하나 뉴욕타임스 아카이브는 현재 기사까지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통합형의 경우 1950년(영국), 1920년(미국)까지의 고신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형 아카이브는 현재 발행 중인 신문까지도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아카이브를 신문의 온라인 구독과 연계할 수 있는 셈이다.

신문사가 운영하는 개별형 아카이브는 단순히 아카이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사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등의 히스토리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신문사 경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역시 국내 신문사에서 활용해 봄직한 전략이라 하겠다.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의 경우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JISC)의 300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이용이 유료이다. 이같은 이용요금 책정은 국가별 저작권법이나 신문 환경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용요금의 경우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구축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리의 언론 환경과 아카이브 환경 등을 고려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유료 회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회원 각자의 노트, 태깅, 스크랩 등 개인화 서비스에 보다 신경을 쓰는 것도 확

인할 수 있다.

CHRONICLING AMERICA는 신문 디지타이징의 주체가 각 주의 주립도서관, 주 역사협회, 대학 등이라는 특징도 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구축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표준을 준수하면서 각 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협업의 방식은 교육적인 면에서나 표준 보급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온라인 퍼블리싱 업체 findmypast를 파트너 삼아 진행하는 영국의 사례에도 구축의 효율성이나 유료화 측면 등에서 장점을 지닌다. 이밖에도 신문의 구조와 구성이 거의 유사한 만큼 신문사별로 중구난방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표준화된 아카이브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개별형 아카이브의 통합이나 공동 활용을 위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보인다.

유수한 아카이브의 역사와 그보다 더 긴 신문의 역사를 지닌 미국과 영국이다 보니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에서도 이처럼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정책적 부분이나 신문의 구독 환경 등 제반 여건은 많이 다르지만 신문의 구조가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는 만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은 결국 유사할 수밖에 없다. 예산과 제도적 지원, 관심과 의지 등만 뒷받침 된다면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을 활용해 서구에 못지않은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국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개선을 위한 제언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정도가 목표인 본 논문에서 구체적 개선 방안까지 모두 다루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구축 목적이나 주체, 대상, 성격 등에 따라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개선 방안 역시도 각각의 유형별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기초적인 연구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과 제언 정도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국내의 대표적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국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명칭	KINDS	고신문 DB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조선일보 아카이브
운영 및 구축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공)	국립중앙도서관 (공공)	네이버 (민간)	조선일보 (민간)
구축예산	방송발전기금 (1986~2006)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네이버	조선일보
구축기간	1986년~현재	2013년~현재	2009년~2011년	2006년~현재
제공기간	고신문/ 1960년~현재	1801년~1950년	1920년~1999년	1920년~현재
제공분량	78개 신문 2,952만 건	48개 신문 1,364,256건	4개 신문 70만면, 385만 건	1개 신문 260만 건
이용요금	무료			유료
유형	통합형			개별형
특징	방대한 DB	안정적 예산지원	이용 편의성	자체 아카이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KINDS의 경우 공공기금이 100억 이상 투입된 방대한 프로젝트였다. 국내 최고 최대의 신문 아카이브라는 명성을 여전히 가지곤 있지만 현재는 이용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중단되고 신문사와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신문 아카이브 측면에서 KINDS는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즉, 과거의 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도서관의 신문 아카이브와 달리 KINDS는 기사 DB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몇몇 고신문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1990년대 이후의 신문기사가 그나마도 기사 텍스트만 제공된다. 원문이 제공되는 신문은 고작 4개 신문, 그것도 1960년부터 1989년까지로, 현재 KINDS는 최근의 신문기사를 DB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도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업, 온라인 뉴스 수익모델 개발 등 아카이브의 본질적인 역할보다는 추가적 콘텐츠 창출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언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향설정이 틀린 것만은 아니겠지만 포털도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이럴 땐 오히려 아카이브의 본질적 측면을 강화하면서 포털과 차별성을 갖춰나가는게 좋을 듯하다. 검색도 잘 안되고, 검색된 자료도 한장한장 다운받아야만 원문을 볼 수 있는 구닥다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는 이용률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신문 아카이브에 걸맞게 완전히 뜯어고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을 적절히 설정해 아카이브 부문을 분리·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미국 국회도서관처럼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기록학과, 신문사, 도서관 등과 협업을 통해 과거 신문의 디지타이징을 하거나 이미 구축된 DB를 여러 기관과 공유하는 등의 방식도 적용해볼 만하다. 해외의 사례처럼 SNS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포털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KINDS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뉴스 콘텐츠 전문가들은 통합아카이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DB참여자의 적극성 강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뉴스 ML로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꼽았는데 이 역시 귀기울여볼 가치가 있다.[41] 개별 신문사들이 구축하는 개별형 신문 아카이브를 통합운영하는 허브의 역할로의 역할 조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영국의 사례처럼 유료화를 통해 각 신문사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도 KINDS가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는 현재 국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중에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해상

41) 우형진, 「신문기업의 뉴스 콘텐츠 디지털화 전략에 개한 문제점 인식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 2009, 73쪽.

도, 상세검색, 뷰어 등 손색이 없다. 특히 디지타이징할 때부터 신문의 특징을 고려해 17가지 구성요소를 구별한 점이 돋보이는데, 이는 검색의 편리성은 물론 신문의 요소별 활용에 있어서도 장점이 많다. 한글변환기능을 첨부한 것도 한자가 등장하는 우리의 옛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고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참신한 아이디어다. 다만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기업에서 구축한 것이다 보니 4개 신문 이상으로 더 이상 확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저작권이 없어 PDF제공이 안된다던가, 텍스트 추출이 안되는 것은 한계이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플랫폼과 기술력이 있으니 표준화 등을 통해 향후 개별 신문사에 보급이 된다면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가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영국의 사례에서 findmypast의 역할이나 ProQuest Archiver 등과 같은 아카이브 솔루션을 네이버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보를 검색, 제공하는 포털의 역할은 일정부분 온라인 아카이브와 유사한 점이 있는 만큼 현재 언론사에서 제공받는 뉴스를 아카이브 형태로 구성하거나, 개별형 아카이브들을 하이퍼텍스트로 연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배분과 기술적인 부문에 협의를 이뤄낸다면 포털과 아카이브의 시너지 효과도 가능할 것이다.

국립 중앙도서관의 고신문 DB의 경우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미 폐간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신문 대상으로 하는 공공 프로젝트로 아카이브 구축이 시급한 신문들이다 보니 큰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 주도의 통합형 신문아카이브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곳은 미국과 영국의 국립도서관처럼 이용이 편리하지 않다. 신문 아카이브 구축이 아닌 원문 DB 구축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글변환 기능, 텍스트 추출, 내용 검색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개별 신문사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국립 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

로 신문 아카이브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단순히 PDF파일 제공, 발행일자 검색 정도의 서비스에 그치는 신문사가 대부분이다. 조금 낫다는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 아카이브도 범위가 창간호부터라는 점을 제외하고 크게 나을게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검색이나 텍스트 추출 등에 불편함이 많은데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아카이브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는게 현재의 상황이다. 신문사에서는 근본적으로 신문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이를 꾸준히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속보성 이라는 신문의 1차적 가치 이후의 2차적 가치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개념의 전환이 요구된다.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뉴욕타임스』처럼 자체 아카이브를 활용해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이윤을 창출할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제대로만 구축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42] 신문은 신문사에게 있어 상품이고, 이를 팔수 있는 온라인 마켓이 바로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이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의 경쟁력은 아카이브에 있음을 상기하고 앞서 살펴 본 MAM(Media Asset Management)의 개념으로 아카이브에 접근해야 한다. 여러모로 신문을 둘러싼 환경은 좋지않은 상황이지만 필요하다면 신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라면 제도적, 정책적 지원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문이 사회의 공기(公器)임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이다.

5. 나오며

신문은 당대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기록물 중 하나다. 매일매일 새

42) 우형진 외, 『뉴스저작물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시장확대 방안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로운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신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성을 획득한다. 신문의 역할은 정부의 비판과 감시이다. 공공의 문제에 해설과 논평을 하는가 하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한다. 메타데이터가 명확한 사진 기록물을 담고 있으며, 지방지는 로컬리티를 확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과 광고를 통해서도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도 신문은 늘 우선적으로 수집이 고려되는 기록물이 된다.

이런 신문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문 아카이브는 그래서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찍부터 외국의 신문사들은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이는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됐다. 신문의 교육적 활용인 NIE(Newspaper In Education)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신문 아카이브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신문사의 미디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AM(Media Asset Management)의 핵심에 신문 아카이브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기사의 작성부터 관리, 유통, 활용 등 신문제작뿐만 아니라 경영 등 신문사의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역할을 온라인 아카이브가 하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기사통합 DB인 KINDS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에서는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KINDS의 경우 서비스 초기에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발행부수 1, 2위를 차지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빠져 있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지방지에 대한 접근성 등은 큰 장점이다. 최근에는 DB에 빅데이터를 접목하려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의 경우 창간부터 현재까지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고신문의 경우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타이징을 하고 있다. 기타 신문사의 경우 10년 안팎의 짧은 기간의 원문 PDF를 제공하는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이브라고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만큼 앞으로 제공기간도 늘리고, 이용의 편리성도 높여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에서 국립인문기금과 함께 역사적 신문을 디지타이징 하는 CHRONICLING AMERICA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각 주의 대학과 역사협회, 공공 도서관에 기금을 줘 매년 10만 페이지의 지역신문을 디지타이징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해볼 수 있는 방식이다. 영국도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유료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곳 역시 영국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의 공공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금도 구축을 이어가고 있다.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며 신문 콘텐츠의 유료화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신문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해외의 신문사들은 아카이브 솔루션을 구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ProQuest Archiver, Gale Cengage-NewsVault가 대표적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신문 자체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신문의 위기를 얘기하며 신문이 변화해야 한다고들 이야기한다. 이러한 신문 체질개선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다. 종이신문의 구독이 줄면서 온라인으로 신문을 접하는 게 당연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신문의 권위와 전통, 신뢰성은 신문의 강점이자 다른 매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확보하는 방법은 보다 효과적이고 충실한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이며, 이것이 신문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고신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형 아카이브 구축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KINDS의 경우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문 아카이브로서의 정체

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 신문사의 경우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아카이브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KINDS의 DB를 보완 활용하거나, 표준화된 아카이브 플랫폼의 공유 등을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신문의 기록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의 발전은 신문의 발전을, 신문의 발전은 우리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테니 말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Online Newspaper Archive : Focus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Song, Zoo Hyung

Aside from serving as a body that monitors and criticizes the government through reviews and comments on public issues, newspapers can also form and spread public opinion. Metadata contains certain picture records and, in the case of local newspapers, the former is an important means of obtaining locality. Furthermore, advertising in newspapers and the way of editing in newspapers can be viewed as a representation of the times. For the value of archiving in newspapers when a documentation strategy is established, the newspaper is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that should be collected. A newspaper archive that will hand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carries huge significance in many ways. Journalists use them to write articles while scholars can use a newspaper archive for academic purposes. Also, the NIE is a type of a practical usage of such an archive. In the digital age, the newspaper archive has an important position because it is located in the core of MAM, which integrates and manages the media asset. With this, there are prospects that an online archive will perform a new role in the production of newspapers and the management of publishing companie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KINDS), an integrated article database, began its service in 1991, whereas Naver operates an online newspaper archive called "News Library." Initially, KINDS received an

enthusiastic response, but nowadays, the utilization ratio continues to decrease because of the omission of some major newspapers, such as Chosun Ilbo and JoongAng Ilbo, and the numerous user interface problems it poses. Despite these, however, the system still presents several advantages. For example, it is easy to access freely because there is a set budget for the public, and accessibility to local papers is simple. A national library consistently carries out the digitalization of time-honored newspapers. In addition, individual newspaper companies have also started the service, but it is not enough for such to be labeled an archive. In the United States (US), "Chronicling America"—led by the Library of Congress with funding from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is in the process of digitalizing historic newspapers. The universities of each state and historical association provide funds to their public library for the digitalization of local papers. In the United Kingdom, the British Library is constructing an online newspaper archive called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but unlike the one in the US, this service charges a usage fee. The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has also invested in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and its construction is still ongoing. ProQuest Archiver and Gale NewsVault are the representative platforms because of their efficiency and how they have established the standardization of newspapers. Now, it is time to change the way we understand things, and a drastic investment is required to improv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online newspaper archive.

Key words : Online Newspaper Archive, Naver News Library, Korea Press Foundation, CHRONICLING AMERICA,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 NY times Archive, KINDS, National Library, Archive Solution